
한국과 미국의 의학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 비교

Comparisons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and American Medical TV Dramas

2조: 김효은, 박효원, 서효은, 신채은, 윤하은, 이지연, 장은영, 최하영, 허경주

Hyoeun Kim, Hyowon Park, Hyoeun Suh, Chaeun Shin, Haeun Yun,
Jiyeon Lee, Eunyoung Chang, Hayoung Choi, Gyeongju Heo

Abstract

Purpose: The negative connotation of nurse practices is seemingly indicated when comparing the medical TV shows of each country. This study hopes to provide awareness for these pejorative portrayals and offers solutions for creating a more balanced and realistic overview of the nursing practice.

Methods: Three TV dramas from each country were selected based on TV ratings in last five years. Character and scene analysis was proceeded. Six nurses from the Korean Dramas and three nurses from the American dramas were chosen as main nurse characters to be considered. Total 843 scenes that nurses appear 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is study was done by mixed methods. It is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udy using Microsoft Excel to analyze collected data. IBM SPSS Statistics 24 was utilized to find o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y applying X^2 -test.

Results: Nurses in the American medical dramas mainly showed realistic clinical roles of nurses, whereas Korean medical dramas limited the clinical roles. This made the latter seem less professional than the former. ER and OR were two major settings in the American medical dramas, while non clinical-related places were major settings in the Korean medical dramas. This made Korean medical dramas difficult to depict the real-world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s.

Conclu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images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s portrayed in Korean and American Medical TV Dramas.

Key words: Nurse image; Clinical role; Medical TV drama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주최 2017학년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며, 선하거나 자기희생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1]. 또한 간호사가 독자적이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인 것으로 생각해왔다[2]. 이에 반해 미국인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데, 2007년 간호사(RN), 선생님, 의사, 약사 등 13개 직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응답자 수가 70%로 선생님 다음으로 높았고, 간호사를 지식, 술기, 전문성 등이 모두 갖춰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25%가 간호사를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으로는 주관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간호사의 외모, 역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의 내적 요인과 대중매체와 같은 외적 요인[1,4], 그리고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만난 간호사의 모습[5] 등이 있다. 이때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제한적이며 이런 경우 대중매체가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2].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6-8] 그 중 텔레비전 드라마의 인물은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9]. 하지만 드라마에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실제와 일치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10.4%에 불과하다는 조사[10]가 있을 정도로 한국 의학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2]. 이처럼 드라마 속의 왜곡된 간호사의 모습은 대중들의 간호사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1].

따라서 대중매체에 드러난 왜곡된 간호사의 모습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간호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한국과 미국 대중들이 간호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간호사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각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을 분석한다.
- 2)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각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을 비교한다.
- 3)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로부터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1) 대중매체

대중매체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수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대중매체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텔레비전 의학드라마를 의미한다.

2) 간호사의 이미지

Kalisch[12]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합이며 본 연구에서는 의학드라마의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게 되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염영희 외의 연구팀이 번역한 이미지 분석 도구[13]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3) 간호사의 역할수행

역할은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직위나 위치에 대하여 개인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규범 또는 행위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의학드라마에서 드러나는 간호사의 행위 즉, 업무와 상통한다. 이는 김정은 외[14]의 연구팀이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의학드라마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을 각각 기술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동시에 이를 비교하는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종영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방영된 간호사가 등장하는 의학드라마 중,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한국, 미국 드라마를 각 세 편씩 선정하였다 (Table 1).

3.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사람이 아닌 텔레비전 드라마이므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인물별 분석과 장면별 분석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인물별 분석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 등 일반적 특성과 외양을 분석한 후 Kalish 등[12]이 개발한 ‘The Internet Nursing Image Tool’를 염영

희 등 [13]이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것을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장면별 분석은 먼저 등장장소를 분석한 뒤 종합병원의 간호사 업무를 분석한 Kim [15]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김정은 등[14]이 수정한 도구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직접간호, 간접간호, 관리, 개인적 활동의 4개의 영역과 20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석된다.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드라마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는 ‘VOD 다시보기 서비스’를, 미국 드라마는 인터넷 스트리밍 미디어 제공 사이트인 ‘넷플릭스(Netflix)’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결정 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코딩북을 작성하였다.

-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장면 분석자들 간 합의를 통해 주요 간호사 및 간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 1차 장면분석에서는, 토의를 통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의 기준을 설정한 뒤, 한 드라마 당 4인을 임의 배정하여 1인당 3개의 드라마를 시청하며 분석대상에 대해 각각 도구의 유목에 따라 코딩북을 바탕으로 코딩시트에 기록하였다.
- 1차 장면분석에서 만들어진 24개의 코딩시트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도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드라마의 4인 장면분석자를 2인 1팀으로

<Table 1> Drama Lists for Analyses

Country	Year	Subject	Broadcaster	Popularity (%) ¹⁾	Number of characters	Number of scenes
					n	n
Korea	2016	Doctors	SBS	18.3%	2	154
	2013	The good doctor	KBS2	17.9%	2	149
	2012	Golden time	MBC	12.8%	2	121
USA	2015	Grey's anatomy season 12	ABC	3.7%	1	188
	2011	House season 8	FOX	2.9%	0	30
	2015	Code black season 1	CBS	1.3%	2	200
Total					9	842

1) 평균 시청률. 한국 의학드라마는 www.nielsen.com/kr/ko, 미국 의학드라마는 www.tv.com 기준.

나누어 1차 장면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코딩시트를 바탕으로 2차 장면분석을 실시하였다.

- 2차 장면분석 후, 각 드라마 당 생성된 2개의 코딩시트로 측정자 간 신뢰도를 측정한 뒤, 각 드라마의 4명의 장면분석자가 다시 모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토의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1) 측정자 간 신뢰도 측정

2차 분석한 두 팀의 코딩시트를 비교하여 드라마별 측정자 간 신뢰도를 계산했다. 신뢰도는 다음의 Holsti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Table 2).

$$\text{신뢰도 계수} = \frac{M}{N_1 + N_2}$$

M : 2팀 간 일치한 코딩 수

N_1, N_2 : 두 팀이 코딩한 전체 항목

Holsti 공식을 이용한 내용분석에서 신뢰도가 평균 90% 이상일 때 적절하다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평균 97.8%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입력, 분석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24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을 구하였다.

첫째, 인물별 특성과 장면별 등장장소 및 역할수행은 해당 장면 수와 백분율로 산출했다.

둘째,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 간 역할 수행의 차이는 역할 수행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X^2 -test로 검증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장면 속 인물과 간호사들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코딩을 하고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재시청 후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수행[13,14]했다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본 연구는, 장면 내에서 비중 없이 배경에 있는 간호사의 간호 행위 또한 장면 선정에 포함시켜 역할을 분석하였으나, 배경 속 캐릭터들이 타 직군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배경 지식 및 추측을 통해 연구자들이 임의로 간호사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선정 시 드라마 기획자의 실제 의도나 대본을 고려한 것이 아닌, 연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본 연구는, 드라마 선정 시 대중 반응의 지표로 써 시청률을 기준으로 두었고, 드라마의 기획의도 및 작품성격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간호사 인물의 극내 비중과 등장 횟수에 있어 6개의 드라마 간의 차이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연구결과

인물별 분석과 장면별 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부록의 표로 대신한다.

1. 인물별 분석

한국 의학드라마 《닥터스》, 《굿닥터》, 《골든타임》에서 각각 2명(총 6명)을, 미국 의학드라마 《코드블랙》,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각각 2명, 1명(총

<Table 2> Measurement of Reliability

Drama	Character Analysis	Scene Analysis	Total
Doctors	113/122 = 93%	3198/3234 = 99%	98.7%
Good doctor	119/122 = 98%	3089/3129 = 99%	98.7%
Golden time	122/122 = 100%	2437/2541 = 96%	96.1%
Grey's Anatomy season 12	58/61 = 95%	3909/3948 = 99%	99%
House season 8	-	609/630 = 96.7%	96.7%
Code black season 1	121/122 = 99%	4050/4200 = 96%	96.5%
Average	97.1%	97.8%	97.8%

3명)의 간호사를 대표 인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드라마 별 홈페이지의 등장인물에 제시된 인물들로 선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극의 진행 상 비중 있게 등장하고 분석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인물들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하우스》의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어, 인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외양(Table 7)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분석한 간호사 6명 중 남자 간호사는 1명(16.7%)이었고,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분석한 간호사 3명 중 ‘남자 간호사’는 1명(33.3%)이었다. 남자도 간호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국 의학드라마는 3편 중 《굿닥터》 1편(33.3%), 미국 의학드라마는 2편 중 《코드블랙》 1편(50.0%)이었다. 한국 의학드라마는 《굿닥터》 1편(33.3%)에서만 간호사 인물의 연령대가 다양했고 미국 의학드라마는 《코드블랙》, 《그레이 아나토미》 2편 모두 간호사 인물의 연령대가 다양했다. 간호사의 연령대를 공식매체의 인물소개로 드러난 연령 혹은 연기자의 실제 연령으로 추정했을 때, 한국 의학드라마 간호사 6명 중 ‘20대’는 3명(50%), ‘40대’는 2명(33.3%), ‘30대’는 1명(16.7%)이었다. 미국 의학 드라마의 경우 3명의 간호사 중 ‘50대’가 2명(66.7%), ‘30대’는 1명(33.3%)이었다.

외양적으로는 한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6명 중 5명(83.3%)이 ‘날씬’했고, 1명(16.7%)은 ‘뚱뚱’했다. 한편, 미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3명 중 2명(66.7%)은 ‘날씬’했고, 1명(33.3%)은 ‘뚱뚱’했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매력적(attractive)’으로 표현된 간호사는 6명 중 3명(50%)이었고, ‘평범한 외모(ordinary-looking)’가 2명(33.3%), ‘못생긴(ugly)’ 간호사가 1명(16.7%)이었다.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3명의 간호사 중 ‘평범한’ 외모가 1명(33.3%), ‘매력적’인 간호사가 1명(33.3%), ‘못생긴’ 외모가 1명(33.3%)이었다. 또한, 한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는 모두 ‘단정한(tidy)’, 미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는 모두 ‘평범한(normal)’ 옷차림이었다.

2) 성격과 가치관(Table 8)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17개의 성격 중 ‘책임감이

있다’와 ‘매력적이고 단정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83.3%)을 차지한 가운데, 대부분(66.7%) ‘자율적이다, 자주적이다’, ‘따뜻하고 친절하다’, ‘신뢰할 수 있다’, ‘능숙하다’, ‘헌신적이다’, ‘영향력이 있다’의 성격으로 그려졌다. ‘교양이 있다/배운 티가 난다’로 묘사된 간호사 비율은 50.0% 이었고 ‘지적이다’, ‘존경받는다’, ‘멋지다’, ‘과학적이다’, ‘권위적이다/권위가 있다’로 표현된 간호사 비율은 33.3%이었다. ‘다양하다’로 그려진 간호사는 거의 없었다(16.7%). ‘성적으로 문란하다’, ‘창의적이다’는 판단할만한 장면이 없어 분석할 수 없었다(Table 10).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17개의 성격 중 ‘능숙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100%)을 차지한 가운데, 대부분(66.7%) ‘지적이다’, ‘자율적이다, 자주적이다’, ‘교양이 있다/배운 티가 난다’, ‘책임감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다양하다’, ‘멋지다’, ‘매력적이고 단정하다’, ‘헌신적이다’, ‘영향력이 있다’, ‘과학적이다’의 성격으로 그려졌다. 이외에도 ‘따뜻하고 친절하다’, ‘존경받는다’, ‘창의적이다’, ‘권위적이다/권위가 있다’(33.3%)로 간호사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판단할만한 장면이 없어 분석할 수 없었다(Table 10).

간호사의 성격적 특성이 위와 같이 묘사되었을 때,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분석된 간호사 6명 중 4명(66.7%)은 다소 왜곡되게 그려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왜곡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역할(Table 9)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6명의 간호사가 모두 보조 인물이었다. 그 중 주변 역할이 6명 중 5명(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역할은 1명(16.7%)이었다.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3명 중 《코드블랙》의 1명(33.3%)이 주인공이었고 2명(66.7%)은 보조인물이었다. 3명 중 2명(66.7%)은 주변 역할을, 1명(33.3%)은 주된 역할을 맡았다.

4) 전문성과 기타 이미지

간호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드라마는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골든타임》 1편(33.3%)이었고,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코드블랙》, 《그레이 아나토미》 2편 모두였다. 전문가

적 식견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은 한국 의학드라마 6명 중 2명(33.3%), 미국 의학드라마 3명 중 2명(66.7%)이었다(Table 3). 간호 제공 시, 간호사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이라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은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6명 중 2명(33.3%), 미국 의학드라마는 0명이었다. 또한 간호사 인물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나오는 장면에서, 한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6명 중 4명(66.7%)이 비정상적으로 그려진 반면, 미국 의학드라마는 간호사 3명 모두 정상적으로 그려졌다. 전문성 빈도를 비교하면,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자주’ 전문적으로 비춰지는 간호사, ‘보통’ 전문적으로 비춰지는 간호사, 전문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간호사가 각각 2명(33.3%)이었다. 미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3명은 모두 ‘자주’ 전문적으로 그려졌다.

한국 의학드라마 3편 중 《굿닥터》, 《골든타임》 2편(66.7%)과 미국 의학드라마 《코드블랙》, 《그레

이 아나토미》 2편 모두에서 간호전문직이 매력적이며 장기적인 직업으로 느껴졌다. 간호사가 환자/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호사는 한국 의학드라마 6명 중 4명(66.7%), 미국 의학드라마는 3명 중 2명(66.7%)이었다.

2. 장면별 분석

1) 등장장소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간호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424 장면이, 미국 의학드라마는 418 장면이 선정되었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기타’(23.6%)가,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응급실’(39.5%)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였다. 두 번째로 간호사가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한국 의학드라마는 ‘간호사 스테이션’(22.6%)이었고,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수술실’(23.0%)이었다.

<Table 3> Professional Competence

Professional Competence		Korea	USA
		n(%)	n(%)
Do nurses exhibit autonomous judgment in professional mailers?	Yes	2(33.3)	2(66.7)
	No	4(66.6)	1(33.3)
Is there a gratuitous message that a nurse's role in health care is a supportive, rather than central one?	Yes	2(33.3)	0(0.0)
	No	4(66.6)	3(100.0)
Do nurs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atient/family welfare?	Yes	4(66.7)	2(66.7)
	No	2(33.3)	1(33.3)
Are nurses shown harming or acting to the detriment of patients?	Yes	0(0.0)	0(0.0)
	No	6(100.0)	3(100.0)
When nurses exhibit professional competence, are they shown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4(66.7)	0(0.0)
	No	2(33.3)	3(100.0)

<Table 4> Settings

Place	Korea drama	USA drama
	Scene	Scene
	n(%)	n(%)
Out patient department	10(2.4)	1(0.2)
General ward	59(13.9)	41(9.8)
VIP ward	12(2.8)	0(0.0)
Emergency room	52(12.3)	165(39.5)
Intensive care unit	30(7.1)	7(1.7)
Operating room(delivery room included)	63(14.9)	96(23.0)
Nursing station	96(22.6)	39(9.3)
Conference room	2(0.5)	0(0.0)
Other	100(23.6)	69(16.5)
Total		418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공통으로 ‘외래’ (한국 2.4%, 미국 0.2%), ‘VIP 병동’ (한국 2.8%, 미국 0.0%), ‘회의실’ (한국 0.5%, 미국 0.0%)은 등장비율이 낮은 장소였다(Table 4).

한편,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기타’ 다음으로 많이 등장했던 장소인 ‘간호사 스테이션’은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9.3%로,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10 장면 미만으로 등장한 ‘외래’, ‘VIP 병동’, ‘중환자실’,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의학드라마에서 간호사의 등장장소와 역할수행을 비교해보면, 한국 의학드라마에 간호사

가 등장하는 장면(424 장면)이, 미국 의학드라마(418 장면)보다 많았음에도,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간호사의 활동(619회)이 미국 의학드라마(968회)보다 350회 가량 적었다.

2) 역할수행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간호사의 역할수행은 두 나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98.238$, $p<.001$)(Table 5).

<Table 5> Job Activities by Category

Categories	Korea drama	USA drama	X^2	p
	Activities	Activities		
	n(%)	n(%)		
Direct Nursing	289(46.7)	597(61.6)	98.238	<.001
Indirect Nursing	166(26.8)	237(24.5)		
Management	42(6.8)	88(9.1)		
Personal Activities	122(19.7)	46(4.8)		
Total	619(100)	968(100)		

<Table 6> Job Activities

Categories	Activities	Korea drama	USA drama
		Activities	Activities
		n(%)	n(%)
Direct Nursing	Cooperating with the medical team	69(11.1)	149(15.4)
	Operating room nursing	64(10.3)	95(9.8)
	Assessment	39(6.3)	69(7.1)
	Personal hygiene·transfer&exercise	34(5.5)	73(7.5)
	Emergency nursing	27(4.4)	102(10.5)
	Counseling&emotional support	22(3.6)	39(4.0)
	Administration of medicine	15(2.4)	26(2.7)
	Treatment	10(1.6)	37(3.8)
	Test	4(0.6)	5(0.5)
	Feeding	3(0.5)	1(0.1)
	Education	2(0.3)	1(0.2)
Indirect Nursing	Record management	75(12.1)	80(8.3)
	Preparation&organization of drugs&other items	61(9.9)	128(13.2)
	Discussing patient	30(4.8)	29(3.0)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research	19(3.1)	30(3.1)
	Reporting in the ward or conferences	14(2.3)	40(4.1)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products	9(1.5)	18(1.9)
Personal Activities	Forming personal relationship	83(13.4)	38(3.9)
	Break&commuting	21(3.4)	3(0.3)
	Meal&refreshment	18(2.9)	5(0.5)
Total		619(100)	968(100)

한국 의학드라마와 미국 의학드라마 모두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등장한 활동이었으나, 한국이 46.7%, 미국이 61.6%로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직접간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간접간호’는 두 나라 모두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고(한국 26.8%, 미국 24.5%), ‘관리’ 역시 한국과 미국이 각각 6.8%, 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개인적 활동’은 한국이 19.7%, 미국이 4.8%로, 이는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전체 활동의 1/5을,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전체 활동의 1/20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개인적 활동’ 중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전체의 13.4%로 가장 많이 등장한 활동이었던 반면,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직접간호’ 중 ‘의료팀과의 협력’이 전체의 15.4%로 가장 많이 등장한 활동이었다(Table 6).

각 영역별로 한국과 미국의 의학드라마를 비교해보면, ‘직접간호’는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289회,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597회 기록되었으며, 한국 의학드라마와 미국 의학드라마 공통에서 ‘의료팀과의 협력’이 각각 23.9%,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등장한 활동은 한국 의학드라마는 ‘수술실 간호’(22.1%), 미국 의학드라마는 ‘응급 간호’(17.1%)였다.

‘간접간호’는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166회,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237회 기록되었으며, 한국 의학드라마는 ‘기록 관리’가 45.2%, 미국 의학드라마는 ‘물품&약 준비’가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관리’는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42회,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88회 기록되었으며, 한국 의학드라마는 ‘인력 관리&연구’(45.2%)가, 미국 의학드라마는 ‘병동 또는 회의 보고’(45.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개인적 활동’은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122회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46회 기록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공통에서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각각 68.0%, 8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등장장소 별 역할수행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공통에서 간호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장소는 ‘응급실’로, 각각 619회 중 160회(25.8%), 967회 중 593회(61.3%) 나타났으며, ‘응급실’에서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모두 ‘의료팀과의

협력’이 19.4%, 19.6%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의학드라마에서는 ‘간호사 스테이션’이 619회 중 133회(21.5%),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기타’가 967회 중 124회(12.8%)로 나타났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두 번째로 간호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장소로 등장한 ‘간호사 스테이션’이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967회 중 55회(5.7%)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간호활동은 한국과 미국 의학드라마 공통에서 ‘기록 관리’로 각각 30.1%, 50.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개인적인 관계형성’이 26.3%, 미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환자에 대해 의논’이 12.7%로 나타났다.

IV. 논의

1. 인구학적 특성 및 외양

주요인물의 외모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인물들은 모두 예쁘거나 보통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예쁘거나 보통이라는 대중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16].

이에 반해 한국 의학드라마와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남자 간호사는 각각 한 명씩 등장하는데, 이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남자 간호사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 대중에게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성적 고정관념이 강하며 실제 직업현장에서 남자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이 존재해왔다[17]. 실제 성별 구성에서 한국의 경우 간호사 취업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 미국의 경우 고용된 간호사 중 남성은 9.6%[19]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남자 간호사에 대한 낮설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20] 반면, 미국은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21]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외양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각 나라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 중 유일하게 ‘뚱뚱하다’와 ‘못생김’으로 분석된 두 주요인물이 남자간호사였다. 하지만 두 인물이 각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드라마인 《굿닥터》의 남성 주요인물의 경우 투박한 외모와 사투리로 극중 회화화되는 인물로 직접간호 중 정서적 지지에만 치중하여 다른 직접적 간호행

위를 하는 것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 ‘보통’ 전문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미국 의학드라마인 《코드블랙》의 남성 주요인물은 응급실에서의 직접간호뿐만 아니라 관리능력도 탁월한 인물로 그려지며 ‘자주’ 전문적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간호사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한국 의학드라마의 경우 주요인물이 주로 젊은 연령대였는데, 이는 실제 한국의 현장간호사 활동현황 조사 결과 응답자 연령구성이 25~30세가 30.5%, 25세 미만 23.2%, 30~35세 19.2%의 순서로 젊은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일치한다[22]. 반면 미국 의학드라마의 주요인물 연령대는 다양했다(Table 10). 실제 2010년 발간된 <National Sample Survey of Registered Nurses>에 따르면 미국 RN의 평균연령은 47세로 2004년의 46.8세보다 증가했으며, 2013년 수행된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and The Forum of State Nursing Workforce Centers>의 조사에서 RN 인력의 55%는 50세 이상으로 한국에 비해 활동하는 RN의 연령대가 다양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3].

2.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특성

1) 주요인물 분석

미국 의학드라마는 100%, 즉, 주요 간호사 3인 모두가 매력 있으며 장기적인 직업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 의학드라마의 주요 간호사 6명 중 2명이 간호전문직으로서 매력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떤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의 흥미성과 작업과정의 자율성, 사회적 위세, 주관적-심리적 측면의 높은 직무만족도 등인데[24], 분석 결과는 한국 의학드라마를 시청하는 대중들에게 간호전문직이 흥미롭지 않거나, 작업과정이 자율적이지 않거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사 인물이나 간호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의학드라마 《골든타임》에서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그려졌다는 답변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골든타임》에 등장한 간호사 인물이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를 재조명한 것으로 분석[14]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국 의학드라마인 《굿닥터》에서는 간호사 인물이 환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만 강조되어,

실제 간호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실무의 영역이 드러나지 않아 간호사의 중요도가 낮게 그려지고, 《닥터스》에서는 간호사 인물이 ‘잡담’을 하는 주변인물로 분석된다. 특히, 《닥터스》의 주요 간호사 인물이 다른 의료전문가와 비교하여 볼 때,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어, 한국 의학드라마 《닥터스》가 간호사 실무의 중요도와 전문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왜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주변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임상현장의 전문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학드라마 《코드블랙》의 간호사 인물 중, Staff Nurse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사가 많지 않은 주변 인물임에도 다양한 간호를 제공하고, 유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그레이 아나토미》의 주요인물인 Scrub Nurse는 대사 한 마디 없는 보조적 인물이지만 시즌을 거치면서 미국 시청자의 눈에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또는 Scrub 전문 간호사로 비춰지는 점[25,26]을 생각하면,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간호사가 하는 실제 기본적인 업무들을 등한시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간호사 인물이 보조적이라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는 6명 중 2명, 미국 의학드라마에서는 0명이었다. 또한,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은 6명 중 2명에 그쳤고,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은 3명 중 2명이었다. 미국 의학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주요인물은 대사가 전혀 없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Scrub Nurse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려져 단순히 보조적 인물이라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의학드라마 《닥터스》에 등장하는 2명의 주요인물은 간호사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조적인 인물이라는 불필요한 메시지까지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의학드라마에서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왜곡을 드러낸다.

미국 의학드라마는 3명의 인물 모두가 환자와 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한국 의학드라마의 6명 중 2명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27]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

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와의 공감, 온정,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Jung [28]의 연구결과에서는, 병원간호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사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 의학드라마 중 임상 간호사의 모습을 가장 충실히 재현한 《골든타임》은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임상적인 간호행위 외에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온정을 바탕으로 하여 간호사의 업무로 정서적 지지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굿닥터》는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골든타임》과는 반대로 간호사의 임상실무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닥터스》의 주요 인물들은 환자와 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현장에서 임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다. 게다가 환자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아, 실제 임상현장을 반영한 연구 결과들과 배치된다. 반면 미국 의학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Scrub Nurse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환자와의 실질적 접촉이 없는 인물로 대인관계 기술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환자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코드블랙》의 주요 인물들은 현재 질병상황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일반적인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간호를 상당부분 재현한다.

앞서 이야기한 논의들은 한국 의학드라마 간호사 6명 중 4명의 간호사 인물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나오는 장면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으로 재확인 된다. 반면, 미국드라마는 간호사 인물 3명 모두 전문적인 능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즉, 한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인물은 미국 의학드라마의 간호사 인물에 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2) 장면별 분석

의학드라마는 치료과정 중 환자의 생명에 긴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내기 위하여 주로 응급상황이나 외과를 배경으로 극을 구성한다[29]. 미국 의학드라마는 분석한 418장면 중 165장면(39.5%)이 ‘응급실’, 96장면(23.0%)이 ‘수술

실’로 간호사 등장장소 1, 2위를 차지했다. 응급실이 등장하는 165장면 중 138장면은 응급실 드라마 《코드블랙》에서 등장하고, 수술실 96장면 중 78장면이 외과중심 드라마인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등장한다. 한편, 한국 의학드라마인 《골든타임》은 중증외상센터가 배경이고, 《굿닥터》는 소아외과, 《닥터스》는 외과가 배경인 드라마임에도 전체 424장면 중 100장면(23.6%)이 주로 카페테리아, 병원바깥 등을 포함하는 ‘기타’로 등장장소 1위를 차지하였고, ‘간호사스테이션’이 96장면(22.6%)으로 2위를 차지하여, 실제 임상간호사의 업무를 보여주기에 다소 어려운 장소에서 간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면 분석도구의 4가지 영역 중 ‘직접간호’, ‘간접간호’, ‘관리’는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이지만 ‘개인적 활동’은 업무영역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의학드라마인 《코드블랙》의 간호사 인물이 보여주는 ‘개인적 활동’ 내 ‘개인적 관계 형성’은 동료애를 보여주거나 의사 또는 동료 간호사에 대한 지지 및 격려의 성격을 지녀 관리영역이라는 간호사의 업무 내에서 ‘개인적 관계 형성’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의학드라마인 《닥터스》나 《굿닥터》에서는 ‘개인적 관계 형성’이 업무 관련 이야기보다는 일상 또는 연애를 주제로 한 잡담이 주를 이뤄, 업무나 전문성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의학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 수행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양국의 의학드라마 속에서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부분의 의학드라마는 의사를 주연으로 하여 극을 구성하고, 작중 간호사의 역할이 주연인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그치는데[14] 이러한 한계는 분석 드라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양국 드라마 모두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 의학드라마인 《코드블랙》의 경우 간호사 주요인물 가운데 Head Nurse 역할의 인물이 유일하게 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한다. 환자나 보호자를 상담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과 임상적인 간호행위 모두에 있어서 응급실 스태프들은 그를 의지

하고, 응급실 관리자로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신뢰를 강하게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분석된 간호사 인물들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코드블랙》과 같이 시청자로 하여금 간호사의 업무가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분석한 미국 의학드라마들 모두에게서 드러난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간호사 커뮤니티에서, 《코드블랙》에 대해 ‘단순히 배경 속의 바쁜 일개미로 그려진 것이 아닌, 캐릭터성이 부여된 간호사의 등장에 대한 찬사’를 표현하였는데[30], 이를 통해 그동안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간호사인물이 ‘배경 속 바쁜 일개미’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미국 간호사 커뮤니티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TV에서 간호사가 배경으로 존재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31]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국 의학드라마 《하우스》에서도 간호사들은 적은 장면 속 배경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묘사되어, 미국 의학드라마 또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 의학드라마들은 간호사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간호사 실무 자체를 왜곡하고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임상 간호사의 실제역할에 대한 혼란과 고정관념을 주는 한국 의학드라마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업무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골든타임》(2012)을 좋은 예로 제시하였음에도 《골든타임》보다 후발 제작된 위의 두 드라마 《굿닥터》(2013) 및 《닥터스》(2016)에서 드러나는 간호사의 모습이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골든타임》은 수술실과 응급실 간호사가 촬영장에서 연기자들의 동선과 손짓 하나까지 자문[32]하여 간호사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반면, 《닥터스》는 의사역할에 대한 자문[33]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한 미국 의학드라마들은, 참여 제작진 목록에 간호사들이 자문역으로 배치되어 있거나[34] 실제 간호사를 간호사역에 배치[35]하여, 임상 간호사의 업무를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정 직업을 묘사하는 드라마의 경우, 임상 간호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간호사의 자문이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the Truth about Nursing>이라는 미디어 모니터링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드러

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모니터링하고, 왜곡을 지적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여 실제 미국 간호사 이미지 개선에 많은 기여[36]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간호계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미디어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간호전문직에 대한 대중매체의 지속적 왜곡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시키고 [2],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은 역으로 간호사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37], 대중매체 왜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미디어 모니터링과 의견 전달의 채널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자문이 실제 의료현장의 사실감을 높이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돕는 만큼, 의학 드라마에서의 간호자문의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전문직에 대한 왜곡을 지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호사 인물에 가치관, 성적지향, 성격,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붙여넣어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인물로만 등장하는 현 의학드라마의 한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시나리오 공모, 성명발표 등 간호계의 행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과 그 역할에 대한 실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간호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 :289-306.
2. Shin MS, Kim NH. Nurses' image perceived by the public: Subjective image of nurses and the image of nurses in mass medi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14(2):937-948.
3. Donelan K, Buerhaus P, DesRoches C, Dittus R, Dutwin D. Public perceptions of nursing careers: The influence of the media and nursing shortages. Nursing Economics. 2008;26 (3):143-150.
4. Porter RT, Porter MJ. Career development: Ou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rofessional

- Nursing. 1991;7(4):208-212.
[https://doi.org/10.1016/8755-7223\(91\)90029-k](https://doi.org/10.1016/8755-7223(91)90029-k)
5. Kim BK, Kim SH, Kim JH, Jang JI, Kang YH, Lim EJ. Difference between the image of nurse before and after nursing experience. *Ewha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07;41(1) :119-136.
 6. Donley R, Flaherty MJ. Strategies for changing nursing's image. In: McCloskey JC, Grace HK, editors. *Current Issues in Nursing*. 2nd ed. London, England: Blackwell Scientific ;1985. p. 823-824.
 7. Kim BL, Kim SH, Kim OS, Nam YH, Lee KJ, Chung BY. College students' images of nurses. *The Korean nurse*. 1996;35(4):75-91.
 8. Jeon YS. (A) Study o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job of secretary described in the TV drama female secretary[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2001. p. 117-120.
 9. Yang MH, Kang HC. Portrayal of female managers and CEO in the television dram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5;49(5):95-123.
 10. Kim HJ, Kim HO.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1;7(1):97-110.
 11. Olshansky E. Why not become an M.D.? A perspective from a student nurse on the profession's imag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9;25(2) :65-66.
<https://doi.org/10.16/j.profnurs.2009.02.002>
 12. Kalisch BJ, Begeny S, Neumann S.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2007;55(4):182-188.
 13. Yom YH, Kim KH, Son HS, Lee J M, Jeon JH, Kim MA.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5;21(3):412-423.
 14. Kim JE, Jung HJ, Kim HN, Son SY, An SK, Kim SB, et al.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medical TV dramas in recent 5 yea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3;10(2) :120-132.
 15. Kim DY. Analysis of nurse's job in general hospital us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fter introduction of electronic nursing record system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6. p. 36-41.
 16. Lee HZ, Lee HS, Yom YH, Lee JM, Jung WS, Park H. A study of the image of nurse through analysing linking words of nurses in internet and social medi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6;22(2):173-18 2.
 17. NewZealand Nurses' Organization. Reshaping the public image of nursing. *Kai Tiaki Nursing New Zealand*. 2013;19(6): 28.
 18. KOSIS: Nationwide employment status by occupation/gender [Internet]. 2017 [cited 2017 May 17].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v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19. U.S. Census Bureau: Men in Nursing Occupations [Internet]. U.S. Census Bureau; 2013 [cited 2017 May 17]. Available from:
https://www.census.gov/people/io/files/Men_in_Nursing_Occupations.pdf.
 20. Moon YI.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2010. p. 102.
 21. Number of males in nursing rising, shaping profession [Internet]. Carolina: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2013[cited 2017 May 18]. Available from:
<http://academicdepartments.musc.edu/newscenter/2013/anderson.html#.WTNit2jyjb0>.
 22. KHIDI: Survey of registered nurses's status in practice. [Internet].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2014 [cited 2017 May 17]. Available from: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158628&menuId=MENU00085>.
 23. AACN: Nursing Shortage. [Internet].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c2009 [cited 2017 May 17]. Available from:
<http://www.aacn/nche.edu/media-relations/fact-sh>

- eets/nursing-shortage.
24. Phang HN, Lee SH. A study 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Good Job”.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06;40(1):93-126.
 25. Brittany Lvely. Where would 'Grey's Anatomy' be without Bokhee? [Internet]. The Unit- ed States: Hypable; 2015 March 16.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hypable.com/greys-anatomy-season-1-1-bokhee>.
 26. Jessica Hubbard. Grey's anatomy's best forgotten character [Internet]. Charlott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6 June 6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s://www.theodysseyonline.com/greys-anatomy-s-forgotten-character>.
 27. Lee. JJ. Study on nurses promoting communication and 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Jeju: Jeju university; 2003. p. 1-88.
 28. Jung. KH.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e's experiences in clin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3;9(4):599-613.
 29. Hwang YM.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types of doctor characters illustrated in Korean TV medical dramas.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1;5:247-280.
 30. Code Black: A Review of the new medical TV show. [Internet]. Nursetogether; 2016 June 22.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nursetogether.com/code-black-review-new-medical-tv-show>.
 31. Randy E. Warmth and competence traits: perceptions of female and male nurse stereotypes [dissertation] New York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7. p. 1-151.
 32. Shooting drama <Golden Time> at Haeundae Paik Hospital. [Internet]. Inje University Paik Hospital; c2012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paik.co.kr/pmc/sub/meet_view.asp?p_seq=24.
 33. <Doctors>. [Internet]. SBS; c2016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program.sbs.co.kr/builder/programSubOnline.do?pgm_id=22000009527&pgm_build_id=16905&pgm_mnu_id=43792.
 34. News on nursing in the media. [Internet]. The truth about nursing; c2005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truthaboutnursing.org/news_alerts/2005/apr15.html.
 35. CBS 'Code Black' tells the real ER story. [Internet]. The Seattle Times; 2015 Sep 30.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seattletimes.com/entertainment/tv/cbs-code-black-tells-the-real-er-story/>.
 36. Our success stories. [Internet]. The truth about nursing; c2013. [Cited 2017 May 20]. Available from: <http://www.truthaboutnursing.org/letters/successes.html>.
 37. Park SA. The effectiveness of message framing to improve the image of nursing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1. p. 1-95.

<부록>

<Table 7> General Traits and Aspects

			Korea	USA
			n(%)	n(%)
General traits	Gender	Male	1(16.7)	1(33.3)
		Female	5(83.3)	2(66.7)
	Age	20-29	3(50.0)	0(0.0)
		30-39	1(16.7)	1(33.3)
		40-49	2(33.3)	0(0.0)
		50-59	0(0.0)	2(66.7)
		≥ 60	0(0.0)	0(0.0)
	Marital status	Single	6(100.0)	0(0.0)
		Married	0(0.0)	0(0.0)
		Separated	0(0.0)	0(0.0)
		Divorced	0(0.0)	0(0.0)
		Remarried	0(0.0)	0(0.0)
		Bereaved/etc	0(0.0)	0(0.0)
		Unknown	0(0.0)	3(100.0)
	Job ranking	Department head	0(0.0)	0(0.0)
		Section head	0(0.0)	0(0.0)
		Director	0(0.0)	0(0.0)
		Head nurse	1(16.7)	0(0.0)
		Staff nurse	3(50.0)	3(100.0)
		Other	2(33.3)	0(0.0)
Aspects	Build	Thin	5(83.3)	2(66.7)
		Normal	0(0.0)	0(0.0)
		Fat	1(16.7)	1(33.3)
	Height	Tall	2(33.3)	0(0.0)
		Normal	4(66.7)	2(66.7)
		Small	0(0.0)	1(33.3)
	Appearance	Attractive	3(50.0)	1(33.3)
		Ordinary-looking	2(33.3)	2(66.7)
		Ugly	1(16.7)	0(0.0)
	Behavior	Lofty	0(0.0)	0(0.0)
		Normal behavior	6(100.0)	3(100.0)
		Crass	0(0.0)	0(0.0)
	Dress	Tidy	6(100.0)	0(0.0)
		Normal	0(0.0)	3(100.0)
		Untidy	0(0.0)	0(0.0)

<Table 8>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Korea n(%)	USA n(%)	Characteristics		Korea n(%)	USA n(%)
Intelligent	Yes	2(33.3)	2(66.7)	Attractive/well groomed	Yes	5(83.3)	2(66.7)
	No	0(0.0)	0(0.0)		No	0(0.0)	0(0.0)
	Not applicable	4(66.7)	1(33.3)		Not applicable	1(16.7)	1(33.3)
Respected	Yes	2(33.3)	1(33.3)	Competent	Yes	4(66.7)	2(66.7)
	No	0(0.0)	0(0.0)		No	0(0.0)	3(100.0)
	Not applicable	4(66.7)	2(66.7)		Not applicable	2(33.3)	0(0.0)
Autonomous	Yes	4(66.7)	2(66.7)	Sexually promiscuous	Yes	0(0.0)	0(0.0)
	No	0(0.0)	0(0.0)		No	2(33.3)	0(0.0)
	Not applicable	2(33.3)	1(33.3)		Not applicable	4(66.7)	3(100.0)
Warm/compassionate	Yes	4(66.7)	1(33.3)	Committed	Yes	4(66.7)	2(66.7)
	No	0(0.0)	0(0.0)		No	0(0.0)	0(0.0)
	Not applicable	2(33.3)	2(66.7)		Not applicable	2(33.3)	1(33.3)
Educated	Yes	3(50.0)	2(66.7)	Creative/Innovative	Yes	0(0.0)	1(33.3)
	No	1(16.7)	0(0.0)		No	0(0.0)	0(0.0)
	Not applicable	2(33.3)	1(33.3)		Not applicable	6(100.0)	2(66.7)
Accountable	Yes	5(83.3)	2(66.7)	Powerful	Yes	4(66.7)	2(66.7)
	No	0(0.0)	0(0.0)		No	0(0.0)	0(0.0)
	Not applicable	1(16.7)	1(33.3)		Not applicable	2(33.3)	1(33.3)
Trustworthy	Yes	4(66.7)	2(66.7)	Scientific	Yes	2(33.3)	2(66.7)
	No	0(0.0)	0(0.0)		No	0(0.0)	0(0.0)
	Not applicable	2(33.3)	1(33.3)		Not applicable	4(66.7)	1(33.3)
Diverse	Yes	1(16.7)	2(66.7)	Authoritative	Yes	2(33.3)	1(33.3)
	No	2(33.3)	0(0.0)		No	1(16.7)	0(0.0)
	Not applicable	3(50.0)	1(33.3)		Not applicable	3(50.0)	2(66.7)
Cool/with it	Yes	2(33.3)	2(66.7)	When nurses exhibit the above personality traits, do such portrayals show them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4(66.7)	1(33.3)
	No	0(0.0)	0(0.0)		No	2(33.3)	2(66.7)
	Not applicable	4(66.7)	1(33.3)				

<Table 9> Prominence In The Plot And Primary Values

			Korea	USA	
			n(%)	n(%)	
Prominence in the plot	Is the nurse in a leading of a supportive role?	Leading role	0(0.0)	1(33.3)	
		Supportive role	6(100.0)	2(66.7)	
	Is the nurse actively participating or shown in the background(handling instruments, carrying trays, pushing wheel chairs)?	Actively participating	1(16.7)	1(33.3)	
		Shown in the background	5(83.3)	2(66.7)	
	To what extent are nurses shown in professional roles, engaged in nursing practice?	Often looks professional	2(33.3)	3(100.0)	
		Usually looks professional	2(33.3)	0(0.0)	
		Not seen as the professional	2(33.3)	0(0.0)	
		Not Applicable	0(0.0)	0(0.0)	
	Is the nurse provides the actual nursing care?	Yes	4(66.7)	3(100.0)	
		No	2(33.3)	0(0.0)	
Primary values	Do the nurses exhibit values for service to others, humanism, scholarship, achievement?	Humanism	Yes	4(66.7)	3(100.0)
		Scholarship, Achievement	No	2(33.3)	0(0.0)
			Yes	2(33.3)	0(0.0)
			No	4(66.7)	3(100.0)
	When nurses exhibit scholarship and achievement, do such portrayal show them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4(66.7)	0(0.0)	
		No	2(33.3)	3(100.0)	
Is the work of the nurse shown to be creative and Exciting?	Yes	5(83.3)	2(66.7)		
	No	1(16.7)	1(33.3)		
Are nurses shown turning to other nurses for assistance or are they depicted as relying on a physician of other character(generally male) for guidance, strength, and/or rescue?	Yes	0(0.0)	1(33.3)		
	No	6(100.0)	2(66.6)		

<Table 10> Sex Objects, Demographics and Career Orientation

			Korea	USA
			n(%)	n(%)
Sex objects	Are nurses portrayed as sex objects?	Yes	0(0.0)	0(0.0)
		No	6(100.0)	3(0.0)
	Are nurses referred to in sexually demeaning terms?	Yes	0(0.0)	0(0.0)
		No	6(100.0)	3(0.0)
	Are nurses presented as appealing because of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rather than their intellectual capacity, professional commitment, or skill?	Yes	1(16.7)	0(0.0)
		No	5(83.3)	3(100.0)
Demographics	Are nurses shown to be of varying ages?	Yes	1(33.3)	2(100.0)
		No	2(66.7)	0(0.0)
	Does the portrayal reflect men as well as women in nurses' role?	Yes	1(33.3)	1(50.0)
		No	2(66.7)	1(50.0)
	Are nurses shown to be of varying marital status?	Yes	2(66.7)	Not applicable
		No	1(33.3)	Not applicable
Career Orientation	Is the work of the nurse shown to be creative and exciting?	Yes	1(33.3)	2(100.0)
		No	2(66.7)	0(0.0)
	Are any roles filled by nurse administrators or managers are all nurses shown as staff nurses or students?	Yes	2(66.7)	0(0.0)
		No	1(33.3)	2(100.0)
	Is there evidence of an administrative hierarchy in nursing or are nurses shown answering to physicians or hospital administrator?	Yes	2(66.7)	1(50.0)
		No	1(33.3)	1(50.0)
Is the scenes with MDs of hospital administrators who does the talking?		MDs	3(100.0)	2(100.0)
		Hospital administrators	0(0.0)	0(0.0)
		Nurse's aide	0(0.0)	0(0.0)
		Others	0(0.0)	0(0.0)